

가정예배 안내서

1

1996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잠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

1996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집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잠언 서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머리말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독자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살'은 조롱거리(사 14:4), 노래(민 23:7, 18), 비유(겔 17:2) 등의 뜻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말은 속담보다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잠언들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진리들을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잠언의 내용을 일반적인 지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잠언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필자 및 편집자에 의해서 완성된 책이다. 대표적인 필자는 물론 솔로몬이다. 그의 이름이 세 곳에 나타난다(1:1, 10:1, 25:1).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강조한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곧 경건의 생활이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악인, 또는 불의한 사람의 어리석은 삶이다. 이 두 가지 삶의 특징과 결과는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된다.

잠언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지혜와 어리석음, 의로움과 사악함, 삶과 죽음, 지식과 무지, 근면과 나태, 질서와 무질서, 성공과 실패, 자제와 분노, 신실함과 신실하지 못함, 복종과 반항, 정직과 비난, 교만과 겸손, 깨끗함과 더러움, 격리와 비방, 화평과 다툼, 사랑과 미움, 인자와 잔인, 관용과 탐욕, 기쁨과 슬픔, 부와 빈곤,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 등이다. 따라서 이 책이 광범위한 호소력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1:7)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수동적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갖는 능동적 두려움 곧 공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며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의 뜻은 첫째로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이요, 둘째로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요, 셋째로 지식의 기원 또는 기초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련한 자’란 문자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센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멸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나쁜 생각과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전혀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 즉 지혜와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제 1996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며 뜻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고집을 부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활을 끊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생활을 합시다. 금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생활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충만하여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2:21)

본문의 21절에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동의적 표현입니다. 이 뜻은 자신들의 전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땅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란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으로 인식되어온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자를 깨울 자라고 합니다. '깨울 자'란 '훈계와 교훈을 부실하게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교만함과 패역함으로 인해 경건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은 '땅에서 뽑히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 악한 자들은 모두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 멸망의 처소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는 삶을 살므로 더욱 성숙한 신앙을 소유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수) 지혜의 가치

찬송 / 369장 본문 / 잠 3:1-35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3:15)

본문은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 및 그 결과로 주어지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20절까지는 신적 지혜의 가치와 그 지혜로 인하여 받을 축복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먼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금보다 낮고 진주보다 귀하니(15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금과 진주는 결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모하는 세상의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 우편 손에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 부귀가 있습니다(16절). 이것은 세상의 보화들이 감히 가져다 줄 수 없는 지혜의 실제적인 유익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수'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을 성실히 준행하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시91:16, 엡6:3). 그리고 '부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보호와 섭리 속에서 누리는 부요함과 즐거움 즉 지극한 번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셋째로 지혜는 생명 나무입니다(18절). 지혜가 주는 축복이 생명 나무에 비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잃어버린 생명을 지혜가 되찾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지혜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축복을 맛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담임목사님을 하루속히 보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4:23)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보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피하고 돌이켜 떠나가야 합니다. 어른들도 친구를 잘못 사귀면 미련한 자가 되고, 악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악을 피할 수 있고 친구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심하며 행동을 삼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마음을 지킴으로써 말과 행동을 지키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 가장 높은 곳에 계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맡겨드림으로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충만함으로써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 주님께 저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오니 제 마음에 좌정하사 모든 것을 주장하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5:21)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은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덕이 문란하고 죄의식도 약해지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빛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음란한 것을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란을 무서운 죄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같이 미끄럽지만, 나중에는 썩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롭게 찌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생활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결혼한 부부는 결혼식에서 서약한 것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혼인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아래서 건전하게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란의 죄는 방심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질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물리칠 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강조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음란을 가볍게 보는 어떤 이론에도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순결을 지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늘 뵈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6:23)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생활, 조심하는 생활,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범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보증을 하였다가 패가하고 친구나 이웃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겸손히 순종합니다. 게으른 것도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놀아도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겸손치 못한 태도이며 만용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겸손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악을 피하는 것, 계교를 부리는 것도 겸손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나 계교를 피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간음을 묵인하거나 호기심을 갖는 것도 교만입니다. 모르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요행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마음과 말로, 또는 행동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어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피조물로서, 용서받을 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교만하면 보증도 서고, 게으르고, 악에 동참하고, 음란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세상의 관습이나 유행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겸손입니다.

▶ 기도 /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범죄에 관여하지 않게 공회를 때꾸소서. 당회원들에게 성령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7:2)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여야 인정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눈에 안보이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7장에는 어떤 어리석은 남자가 음란한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묘사한 것은 읽는 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끊어버리지 않으면 질질 끌려 들어가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진행되는 일은 처음부터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음녀를 보게 되었을 때, 즉시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유혹을 받게 되고, 말을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람 눈을 피해서 만나거나, 어른들 몰래 무엇을 시도하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권, 개성, 자유 등의 달콤한 말로 부모님들과 어른들 말씀을,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영으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유혹은 시작에서부터 끊어버려야 합니다. 잠시 후에 벗어나자는 생각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며, 숨어서 하는 일은 처음부터 거부함으로 빛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숨어서 하는 어떤 일에도 가담치 않고 처음부터 거부하는 용기를 주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성령충만하여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8:17)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 의심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밝고 명철해야 합니다(5절). 5절을 보면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며 '명철할지니라', '마음이 밝을지니라' 고 외칩니다. 명철과 밝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12, 14절). 그 분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명철과 밝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말씀의 훈계를 듣습니다. 둘째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7절). 마음이 청결한 자, 훈계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악에 대해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그 죄악으로 인해 양심에 찢린 바 되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셋째로,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요 2:32).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무능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찾을 때 그 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모셨다 해도 죄악을 품고 있다면 그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꺾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분의 사랑과 은혜를 부지런히 찾고 구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 일꾼으로 임명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9:1)

본문에는 우리를 초대하는 지혜의 부름이 있습니다. 지혜가 베푼 잔치의 특성을 통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의 잔치입니다. 1절은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지혜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고 누구나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마련한 은혜의 잔치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는 욕의 사람, 옛사람, 옛 성품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새 성품을 덧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참석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말씀이 그 음식인 잔치입니다. 2절에 보면, 지혜는 집을 단장하고 깨끗이 할 뿐 아니라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짐승과 포도주는 순종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며 그분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잔치의 참된 양식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참된 음료는 그분의 피인 것입니다(요 6:55).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친히 마련하신 상을 받아 그것들을 먹고 마실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셋째로, 생명과 구원의 잔치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여 지혜가 마련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자는 생명을 얻게 되며 명철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6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즐거워하며 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습니까? 풍성한 기쁨이 있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구원의 잔치에 날마다 초대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음을 감사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을 진행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이는 입술과 살리는 입술 (수)

10

찬송 / 493장 본문 / 잠 10:1-32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10:11)

본문에는 두 종류의 입술이 나옵니다.

첫째로, 독을 머금은 입술은 죽이는 입술입니다. 여기서 독은 거짓과 사악함, 참소함입니다(18절). 악인의 입술은 패역하여 진실함이 없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모함하는 데 사용됩니다. 악인과 미련한 자의 입술의 특징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데 사용되거나 허탄한 말, 무책임하게 많은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술의 결과는 실수와 허물과 패망입니다.

둘째로, 생명을 주는 입술은 살리는 입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어떠해야 의인의 입술, 생명의 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먼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엡 6:18). 또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들을 얻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입술은 전도하는 입술이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며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은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골 4:6).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의인의 입술입니까? 아니면 독을 품은 악인의 입술입니까? 우리들의 입술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잘 점검해보시고 정직한 말, 선한 말, 증거와 찬양과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모든 찬양대원들이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 윤택하여지리라』(11:25)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급급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풍요함의 비결이 많은 재물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때일수록 성도는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진정으로 풍족해지는 비결과 구제의 자세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로, 흠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구제함의 결과가 더욱 부하게 되는 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제아무리 노력하며 아껴서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빈천한 삶을 면치 못함을 의미합니다. 또 25절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구제를 행할 때는 반드시 전인격적으로 풍족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소유한 자만이 나누어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마음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또한 윤택케 해줄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막 9:35).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스스로의 삶도 풍성케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27절). 주어진 것이 적기에, 혹은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른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것부터 나누는 실천을 통해 배가된 기쁨을 느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늘 구제하고 나누어,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령충만하여 새로이 맡은 학생들을 잘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12:2)

의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며, 맡은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며, 생명의 귀중성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악한 생각을 도모하며,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사망의 징계를 받을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의 생각과 생활을 통찰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의인은 고난을 받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악을 피하는 자는 미래에 백보좌 앞에서만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도 정죄함을 받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받은 성도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는 주는 행위를 금하고, 오직 선과 긍휼을 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선행을 하는 자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시며,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직장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긍휼을 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의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하여 의인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각 교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부흥하는 복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 (13:1)

마음이 교만한 자는 남의 훈계와 가르침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끌려 생활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훈계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에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교육과 삶에 대한 훈계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목적이 자식의 온전함에 있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그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여겨질 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헤아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다윗이나 욥은 징계 중에 있을 때 변박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며, 묵묵히 참고 인내하였습니다(시 38:14,15).

성도는 징계 속에서도 그 분의 섭리와 손길을 감사하며,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굳게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남녀전도회를 통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14:2)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정직한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참된 지혜와 정직한 자에 대한 기준은 가난한 자의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은(31절)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을 지닌 자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불완전한 모습이나마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관심하면 안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됨을 기억한다면 형제의 가난을 곧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기게 하소서.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15:8)

잠언 14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마음 상태와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하지만 15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를 삽입함으로써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번제와 같은 제사로 알고 있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며, 가난한 자를 확대하며, 온갖 죄악을 행하다가도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 하노라”(사 1:11) 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는 악을 행하면서도 주일에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정직한 생활을 한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있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생활을 살며 기도해야 합니다.

▶ 기도 / 참된 예배를 드리는 충현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16:3)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합니다(고전 1:25). 그런데도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나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행사와 경영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온전히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어린 소년일 때 누구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던 거인 골리앗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 물맷돌로써 쓰러뜨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삼상 17:45-52).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 전쟁을 위하여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하고 자랑하려던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온역의 심판을 받고 도리어 칠만이나 되는 백성을 잃고 말았습니다(대상 21:1-14).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으나, 반대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적인 것에만 의지한 계획은 아무리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치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잠 16:9).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잠 3:5, 6).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힘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 기도 /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승리케 하소서. 모든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17:9)

이솝 우화입니다. 흰 말과 검은 말들이 사이 좋게 지내고 있는 목장에 어느날 사자가 침입해왔습니다. 그러나 흰 말과 검은 말이 서로 일치단결하여 뒷발질을 해대는 통에 사자는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자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흰 말과 검은 말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이 자기를 욕하더라는 사자의 말만을 믿은 흰 말과 검은 말들은 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가 검은 말 한 마리를 물고가도 흰 말들은 본체만체 하고 반대로 흰 말을 물고가도 검은 말이 본체만체 하여 결국 차례로 모두 잡아먹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와같이 사람들을 이간시켜 분쟁과 대립을 하게 만들어놓고 마침내 그들을 모두 집어삼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흉계에 대적하여 능히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으로서 불화를 초래케 하는 이간질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이간질하는 악한 행동을 삼가하고 또한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1)는 말씀같이 늘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건강(신장)을 하루속히 회복시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18:20)

예로부터 우리들은 '말이 씨가 된다' 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삼가하곤 했습니다. 이는 좋은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같이 지혜로운 말 한 마디는 참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며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거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고, 나아가 한 마디의 유언비어가 온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거나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반드시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였습니다(눅 6:45). 그러므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잠 15:1) 남에게 상처를 주며 미혹케 하는 말(롬 16:18)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하고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기쁨의 열매로 배부르는 것과, 악하고 어리석은 말로써 저주의 열매를 부르는 것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로운 입술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시사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19:11)

현대인은 너나 할 것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생존경쟁이 치열해져서 열심히 뛰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인스턴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사람들은 간편하고 신속한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 같은 인스턴트 시대에 발맞추어 사람들의 됴됨이조차도 인스턴트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차로 참을성, 인내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고 무슨 일이든지 성급하게 해결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같이 점점 인내의 가치를 잃어가고 여유를 빼앗기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첫째,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잠 19:11) 요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격분하기에 앞서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해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양보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옛부터 우리들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양보하는 아름다운 기품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같은 인스턴트 시대에 남에게 양보하고 인정과 사랑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급하고 분내기를 잘하는 이 모습 용서해주시고 양보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전개하는 교회당과 선교센터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20:24)』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중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진리를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관계도 있지만 간혹 나쁜 관계를 맺게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치 아니하는 불편한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하여 억울함이 생기고 실제적인 피해를 보기까지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경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대항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에 의해 성도가 입은 피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보복함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분쟁과 다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부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행위를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신 32:35).

본래 우리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해결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본연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더욱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성지연구소 설립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21:2)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기본적인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직’ 일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마음이 바르고 솔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정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욱 패역한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죄악에 깊이 물들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정직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심령상의 허전함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다른 것을 가지고 보완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 또는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정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식들은 결단코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직’은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우리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전개하는 현지인 선교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22:4)

이 세상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은같은 많은 재물들을 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명예와 은총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예' 를 택한다는 것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상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신용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택한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마 4:4)에 진정으로 순복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즉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분명히 빈부(貧富)가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하고도 겸손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재물' 과 '영광' 과 '생명' 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속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적인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을 축복하사 중국인들이 우상숭배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23:17)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견디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세상 속에서 죄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육간의 삶에 공의를 실천하려 애쓰며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수록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면적인 모습에서 크게 성장된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판단하며 무엇보다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욱 빨리 성장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순간에 마음속에서라도 그 악한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함은 일시적인 것이며 장래의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눈으로는 그 순간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만 같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를 때의 안개와도 같이 어느 순간인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그러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그저 우리들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경외하게 될 때에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모슬렘권이 하루속히 복음화 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 』(24:17)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7,18절과, 28,29절에는 이웃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웃들을 서로 자기 몸처럼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에, 평상시에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정신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17절에 보면 잠언서 기자는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원수가 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원수들이 넘어지면,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원수가 내 앞에서 넘어졌도다!”라고 기뻐하고 의기양양해 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행동을 보시고 그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에게 원수들까지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 물을 마시우라』(25:21)

우리는 앞에서 원수들이 넘어질 때에 기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우리의 원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하면 물을 마시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잘못 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가 사업이 망하여 쓰러져서 재정이 궁핍하게 되면 박수를 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가 빚에 몰려서 쫓기고 있으면, 힘닿는 데까지 그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매우 힘들어보이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 계명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하나님께 맞아서 재앙을 만났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실 것과 또 이웃들도 자기를 용서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자기에게 도움을 손을 펴준다면,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도와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에게 사랑하는 힘을 주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생활을 통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같이 …… 거듭 행하느니라』(26:11)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꾸준히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나가지 않으면, 믿기 이전의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며, 매일같이 거듭하여 행하는 실수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양심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불신자보다도 더 완악해지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반복하여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얻은 이후에 계속하여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더욱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며, 결국은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하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일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일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실수를 거듭하여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이러한 거듭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저희에게 거듭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을 통해 교포와 현지인들이 더욱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27:5,6)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은 ‘친구’입니다(6, 9, 10, 14, 17). 히브리어에 있어서 이 말은 ‘서로의 우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친구들은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한 쪽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다른 쪽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마치 잔잔한 물에 서로의 얼굴이 비치는 것같이, 그들의 마음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19). 친구가 어려울 때 가슴 아파하며, 친구가 즐거울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우정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서로의 인격을 연단해주며,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 말을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자기의 친구를 향해서 정직하고 사랑어린 충고와 면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5, 6절에 있는 대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의 아침은 거짓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우정은 잘 계발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귄은 우리를 더욱 더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 친구는 우리를 버리고 이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진실한 친구되신 주님과 진실한 사귄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맛사이족 선교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28:13)

형통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주시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이고(1), 공의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는 사람입니다(9).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하며, 둘째는 죄를 자복해야 하고, 셋째는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죄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 일까요? 우선 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엎드러지고, 멸망하는 순간에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숨은 죄,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의 세상 일에 욕심을 두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공활히 여기시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오늘도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의 공활을 얻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에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29:25)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자기로 하여금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세상과 사람들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이 곧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며 자기의 자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노와 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은 그 속에 말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쑥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의지하여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돕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30:7)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 수 있는 사람! 그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아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첫째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며(요 8:44), 허탄과 거짓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품고 살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일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기 때문이었고, 만일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적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망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의 아름다운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보다는 내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아굴과 같은 두 가지 기도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도록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31:10)

현숙한 여인! 이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남편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므로 남편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건강하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부지런히 그 손으로 일하며, 모든 사람을 지혜롭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모든 가족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참된 아름다움은 고운 것이나 외적인 아름다운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헛되어 지나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여 얻는 칭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이처럼 진주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녀들은 일어나 사례할 수 있는 현숙한 여인!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두기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깊은 신앙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역시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깊은 신앙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후회없는 삶이 되기 위해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들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있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바라며 2월을 맞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십계명

- 서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읽을 말씀 :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찬 송 : 235, 505

인류 역사상 십계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준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 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며 기독교 윤리의 근본으로 이 계명의 입법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곧 신률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아직도 유효한 메시지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순종이 요구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열 마디 말씀(신 4:13), 율법과 계명(출 24:12), 십계(출 34:28), 언약의 돌판(신 5:6), 두 돌판(신 9:10, 17), 계명(눅 23:56, 롬 7:12)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학자 우드(Wood)의 말처럼 율법은 소극적으로는 죄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죄를 각성시키지만(롬 3:9),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자녀들의 온전한 삶의 규범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Elohim)이란 단어는 권능자, 전지전능하신 자, 두려움과 존귀의 대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전능하신 분을 의미하는 하나님(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2. 십계명은 누가 어디에 기록한 것일까요?(출 24:12, 31:18)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온통 돌로 뒤덮혀 있는 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어 십계명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돌은 특히 변함없는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출 8:19) 기록하신 것입니다.

3. 그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어디에서부터 인도하여낸 후에 주신 말씀입니까?

혹자들은 지금 우리는 은혜 아래 살고 있으므로 율법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십계명이란 우리 생활을 얹어매는 굴레가 아니냐면서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건져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요?(렘 7:22-23, 11:4)

율법은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질서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지킴으로 받을 복은 매우 큼니다. 특히 여호와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5.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마 22:37-40)

- | | |
|-----|------------------------|
| (1) | (신 10:12; 마 22:34, 40) |
| (2) | (레 19:17-18; 마 22:39) |

십계명은 대신(對神) 계명이라고 하는 1-4계명과 대인(對人) 계명이라고 하는 5-10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이요, 행동의 실천강령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 다음 주에는 제1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2 과

제1계명

- 신앙의 대상

읽을 말씀 : 신명기 4:35-40

출애굽기 20:3

신명기 5:7

찬 송 : 30, 204

모세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온 인류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 외에는 섬길 신이 없다는 것을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만 생각하고 높이며 경배하고 사랑하고 믿고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1계명에는 무신론 또는 다신론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도록 요구하십니다.

1.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1) 이사야 43:10
(2) 마태복음 4:10

사람들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신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참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 신이 아닌 피조물들에게 경배하며 은택을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2.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 (1) 시편 14:1
(2) 시편 10:4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줄 알고 자신들과 세상의 다른 것들(우상들)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관에 의하여 선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악도 악이지만 진정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3.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은 제 1계명에서의 금령입니다. '나 외에'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출 3:14)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 금령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참 하나님으로 섬겼듯이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는 것을 금한 것이요(왕하 17:33), 다른 하나는 그

릇된 잡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출 34:14).

4. 제1계명은 다른 신들과 함께 참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 (1) 을 세우는 자들(렘 2:28)
- (2) 들을 찾는 자들(렘 18:11)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무당과 점장이를 찾는 사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대학가에도 점장이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당장의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신접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다음 주에는 제2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3 과

제2계명

- 바른 경배에 관하여

읽을 말씀 : 출애굽기 20:4-6

신명기 5:8-10

찬 송 : 28, 495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출 20:4-6)고 하셨습니다. 제1계명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한 하나님을 강조함에 비하여 제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방법 즉,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모든 거짓된 신들을 금하는데 반하여 제2계명은 모든 거짓된 예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상숭배 혹은 미신적인 거짓된 예배로 전락함을 경고함으로써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상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상이란 신약성경에서, 특히 바울사도에 의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엡 5:5, 골 3:5)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란 살아계신 인격 대신에 죽은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시 115:4-7, 출 31:3, 사 46:6)을 의미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강조하는 우상의 본질은 이기심에 뿌리박고 있는 육신적 허상입니다(렐 10:3-5, 사 44:9-11).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어떤 만물, 물질, 욕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1. 제 2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1) ()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신 13:6-8, 4:15-16).
(2) ()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삼하 6:7, 레 10:1).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2.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요 4:23-24)

고대 근동지방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에 새겨 만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하신 물질 위에 초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예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형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의식입니다(엡 5:5, 골 3:5).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3.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5절)

이 낱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늘 사용되고(출 34:14, 신 4:24, 수 24:19 등)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남에게 빼앗겼을 때에 일어난 열정”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하고, 우상숭배는 곧 아내의 부정행위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께서 그의 선민을 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전제되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4.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몇 대까지 갚으시며,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까?(6절)

(1) 미워하는 자 ()대

(2) 사랑하는 자 ()대

우상숭배는 가장 무서운 죄로서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근본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악의 영향보다 경건의 감화가 비할 수 없이 큰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배의 태도로 인하여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레 26:39, 단 9:16).

♣ 다음 주에는 제3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4 과

제3계명

- 경외하는 방법에 관하여

읽을 말씀 : 출애굽기 20:7

신명기 5:11

찬 송 : 347, 478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어 일컫지 말지니라”(출 20:7)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생활의 대화나 서약, 기도, 선정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성호가 이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로 인하여 훼방되거나 거짓증거나 저주 등에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일에 오르내리도록 하지 말 것이며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의 위엄과 신성함을 추락시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오락을 위하여, 농담 등에 사용하여 모독하는 행위는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외미에서든지 오용이나 남용, 혹은 악용을 경고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신 28:58)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여호와와 성호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 이레(창 22:14)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이며, 여호와 사파(출 15:26)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 103:3)란 뜻이요, 여호와 닛시(출 17:15)는 “여호와는 나의 기”란 뜻입니다. 여호와 살롬(삿6:24)은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란 뜻이요, 여호와 레아(시 23:1)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10:19)란 뜻입니다. 여호와 칠키누(렘 23:6)는 여호와는 나의 의(고전 1:30)란 뜻이요, 또 여호와 삼마(겔 48:35)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계 21:3)는 뜻입니다.

2.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그 이름을 멸시하거나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훼방하거나 악용하거나 의심하는 것도 이 계명에 속한 것입니다(시 5:12, 말 2:2). 이는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기 “죄 없다 아니하리라”는 말은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때문에 제3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에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자

는 제3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 본질과 의지의 사역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라(신 4:9, 11:19, 눅 22:32)고 했습니다.

4.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욕되게 하는 경우를 찾아봅시다(레 19:12).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라고 하십니다. 그는 '영원 자존자' 이십니다. 이름은 바로 인격과 동일시 됨으로 여호와와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마 6:9). 신의 이름을 남용하여 맹세한 자에 대해 고대 애굽에서는 사형에 처했고, 그리스에서는 죽음의 여신이 추격해와 그와 그의 자손을 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본 계명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지성소에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후에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절고 맹세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당하게 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에는 제4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 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